

“위대한 인생”

참16:3

물에는 원래 부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간은 그 힘에 의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의 초보자는 결코 자신을 물에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띄우려고 결사적으로 사지를 휘저어 자기를 물에 뜨게 하려고 전력을 다합니다.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더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과의 사투 속에서 기진맥진하여 축 늘어졌을 때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되고, 놀랍게도 그 때서야 비로소 물에 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맡길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그 만큼 포기하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과 야망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 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의 골수분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에 흠이 없이 자랐고 순수혈통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최고학부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하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왜 그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교를 택하여 신실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예수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포기가 됩니까? 진정으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 때 포기가 됩니다.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도 더 좋은 것,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기에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은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위한 포기는 오히려 진정한 복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왜 포기를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실천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명을 건 믿음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앙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옴과 같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때서야 진정한 포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확실히 있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좋은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삶이다.

믿음의 사도바울도 “(빌 4:6)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지만, 자신이 수감된 로마 감옥을 방문한 에바브로디도라는 하는 제자가 갑자기 병이 들어 위중하게 되자 근심했습니다. 이렇게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할 일과 사람의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이미 거주하기에 적합한 환경의 에덴동산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도와서 만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누릴 따름이었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여호와 이레'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 죄악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구원을 스스로 예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릴 위해서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이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국 조차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포기함을 통해 복을 얻었습니다. 고향 전토 친척 아버 집을 포기하고 조카 롯을 포기했을 때부터 복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3 장 14 절로 16 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발할 때부터 조카를 포기하라고 했는데 그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잡고 있을 때는 논쟁밖에 없었습니다만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이삭을 포기함으로 천하만민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 살 나이에 낳은 아들을 각을 떼서 태워 드리는 제사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바로 아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22 장 16 절로 18 절에 말씀하기를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그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포기함으로 도로 그 아들을 얻고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인생 속에서 경험한 '여호와 이레' 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각자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포기하지 못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주시고, 포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은 무엇이며, (그 영역을 포기하는 대신에) 붙잡아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4. 하나님을 만난 이후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한 '가치관의 변화'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5. 10월 20일 사랑나눔축제를 준비하며 VIP로 품을 영혼들을 종이에 적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찰스 스펀전은 말하기를 “헌신은 자기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자신의 소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보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는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워 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과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믿고 나면 예배를 목숨같이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뿐만 아니라 살아계심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의 귀한 것도 포기하면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의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처소를 방문하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일이 되어 예배를 하던 중, 한 자매가 몸에 땀이 범벅이 된 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자매가 예배해야겠다고 한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처소로 찾아온 것입니다.

‘내려놓음’과 ‘포기’는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는 삶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얻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면 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